

전북대 빈(Vinh) 대학 역량강화 사업 ‘가시적 성과’

K-수의학, 베트남에 뿌리내리다

공동실습 · 실습센터 마련해 수의학 교육 · 연구역량 강화 지원
국제 공동실습 · 산학협력 통해 우수 인재 양성 · 축산발전 기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추진 중인 베트남 빈(Vinh)대학교 역량강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시한 3차 년도 제2차 과전을 통해 빈대학교에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공동실습·실습센터)을 개소, 수의학 핵심 분야 실습교육과 산학협력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2차 방문을 통해 글로벌 PBL 기반 수의학 공동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수의교육 봉사활동을 현지에서 실행하고 실습교육, 임상진료, 산학협력 활동 등 베트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김남수 단장과 강형섭·장형관·김범석·박병용 수의대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전문적 노하우를 전했다.

이들은 빈 대학 수의·축산학부 학



전북대학교가 추진 중인 베트남 빈(Vinh)대학교 역량강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미생물학, 병리학, 조직학, 약리학, 외과학 등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했다. 또 감염동물 사례 분석과 병리 부검, 조직염색, 외과수술 실습 등을 통해 임

상 능력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제공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수의대생이 함께 참여하는 PBL 기반 국제 수의학 공동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베

트남 현지 범규의 허용안에서 진행된 수술(Live Surgery) 실습을 통해 전북대 학생들에게는 현장에서 심한 규제에 제한된 임상 술기 경험을 하고, 빈 대학 학생들에게는 최신 수의학 지식과 임상 술기 및 실습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첨단 축산·수의학 실습실 개소와 함께 현지 교수진 등을 대상으로 장비 운용 교육도 병행했다.

이 밖에도 지역 가족기업인 SHIBA 동물병원을 방문해 지역 진료 현황과 정형외과 수술 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 이전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더불어 베트남의 동물백신 수입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캐슬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주요 전염병 백신 공동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베트남사업단 김남수 단장은 “이번 과건으로 베트남 현지 대학이 자립형 교육·연구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제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수업나눔 박람회, 교사가 기획 · 주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개최
전북교육청, 19일까지 참여 교사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업나눔 박람회 참여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본청과 전주우림중학교 등에서 펼쳐진다.

모집 분야는 개막식 스피치 및 나의 수업 성장 이야기 나눔, 교육정책 대담 패널, 학교급별 수업나눔, 교육학습공동체 부스 운영 등이다.

개막식 스피치는 △신규교사의 수

업 성장 이야기 △매너리즘 극복 이야기 △수업친구와 함께하는 수업·평가 개선 이야기 등과 같이 교사 자신의 수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교육정책 대담은 △AI 시대, 교사의 역할 변화와 수업 혁신 △학교 자율성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가능성 △교사의 삶과 일·학습·균형: 정책이 뒷받침해야 할 부분 △교육학습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나눔 문화 확산 등

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교사를 찾는다.

박람회의 핵심인 학교급별 수업나눔에는 6팀, 특수 3팀, 초등 36팀, 중등 36팀 등 총 81팀을, 교육학습공동체 부스 운영은 연구회·교사연구회·학생중심동아리 사례나눔을 중심으로 80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각급 학교 교사는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5일 공문 발송 및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최근이 중등교육과장은 “중등교육과를 비롯해 유초등특수교육과, 문체건강과가 함께 학교에서 꽃피우는 수업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 혁신 사례와 교육학습공동체 연구 활동 결과를 나누는 축제의 자리에 역량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16일부터

‘천원의 아침밥’ 시행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순태)가 오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기로 했다.

9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하고 차별화된 식단을 천원의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에 재학생들은 교내 학생식당에서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메뉴는 덮밥, 김밥, 부리또, 컵밥 등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국제 · 국내 교육 인증 재획득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KABOTE)으로부터 국제 및 국내 교육 인증을 동시에 재획득했다.

9일 전주대에 따르면 작업치료학과는 지난 인증 주기에서 국내 및 국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교육과정의 체계성 △입상 및 현장 실습 교육의 질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교육과 연구, 그리고 글로벌 교류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며 미래 작업치료 전문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2025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가 9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취업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 · 우수기업 잇는다

우석대 체육관서 ‘2025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도내 63개 우수 중소기업 참여… 현장 면접 등 진행

‘2025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가 9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직업계고 출신 기술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시작돼 3년차를 맞았다.

올해는 63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

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자동차·전기, 식품·바이오, 관광·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이 외에도 컨설팅관, 취업지원사업 홍보관,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컨

설팅을 도왔다.

특히 메타버스 VR체험, 이력서 사전 무료 촬영 등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돼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20여 개 일자리 유관기관도 함께 해 성공적인 인력 매칭과 사업효과 제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문형심 청의인재교육과장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도내 직업계고 출신의 전문인력과 일자리 매칭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이번 취업박람회가 우수 중소기업과 직업계고 학생 간 성공적인 일자리 매칭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석 · 박사과정생 정부 연구 지원 선정

전북대 이상준 교수팀 소속 대학원생 6명

전북대학교 이상준 교수(공대 전자공학부) 연구팀의 대학원생 6명이 ‘2025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및 ‘2025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최지호



황규태



송지민

이에 따르면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은 24개월간 연간 2,500만원,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은 12개월간 1,200만원의 연구비를 각각 지원해주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표 학문 후속세대 양성 사업이다.



남창우



정세영



이재명

최지호 박사과정은 ‘멀티스펙트럴 영상 기반의 비접촉식 생체신호 추정을 통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기존 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운전 환경과 같은 비통제 상황에서도 생체신호와 건강 지표를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 기반 딥러닝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규태 박사과정의 연구주제는 ‘온디바이스 주행 환경 인지를 위한 시각 언어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 기술 연구’다. 모바일 센서 시스템 구축과 영상·동역학 정보 융합, 전문가 코드북 학습, 지식 증류, 프루닝·양자화 기반 경량화 기법을 통해 효율적인 온디바이스 모델 구현과 산업 현장 적용이 목표다.

형상 복원을 위한 멀티모달 조건부 디퓨전 AI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기존 라이다(LiDAR) 센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물체 색상에 따라 왜곡된 3차원 데이터를 정밀하게 복원하는 멀티모달 AI 기술을 개발하고, 3차원 인지 기술 고도화 기반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세영 석사과정은 ‘제조 AI 고도화를 위한 비지도 이상탐지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 검사 방식이 지닌 한계와 높은 인력·시간적 비용을 극복하고, 지능형 품질 관리 및 예측 기반 탐지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비지도 학습 기법을 바탕으로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결함과 잠재적 이상 신호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생산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지민 박사과정의 연구주제는 카메라 기반 실외 자율주행을 위한 ‘환경 적응형 깊이 추정 기술 기반의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기술 개발’이다. 이는 비지도 학습 기반 깊이 추정 모델과 환경 정보 설명 생성 모델, 딥러닝 및 최적화 기반 위치 추정 기술을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반복적 위치 보정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창우 박사과정은 ‘3차원 객체의

/장은성 기자

난분해성 오염물질 제거 신개념 광촉매 개발

전북대 판데아닐 연구원, 미국화학회 학술지 메인 커버 장식

전북대학교 화학과 판데아닐 연구원(박사수료, 지도교수 한재량)의 연구 성과가 미국화학회 학술지 ACS Applied Engineering Materials 8월호 메인 커버 아트에 선정됐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비스페놀A, 메틸렌 블루, 테트라 사이클린, 이부프로펜 등 유색염료 및 의약품 잔류물 15분 내 90% 이상 분해하는 탁월한 성능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이 연구는 아연산화물(ZnO)과 은산화물(Ag₂O)의 p-n 헤테로접합에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s)를 결합한 삼원 복합체(ZnO-Ag₂O/MWCNTs)를 간단한 습식합성과 고압 열처리로 구현했다.

그 결과, 태양광 조사 조건에서 비스페놀A를 50분 만에 92.4% 제거하고, 메틸렌 블루·테트라사이클린·이부프로펜 등 유색염료 및 의약품 잔류물 15분 내 90% 이상 분해하는 탁월한 성능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관계중심 생활교육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무담당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사회정서 교육 확대 방안, 사례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2학기 도입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 교사 양성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교원의 관계개선 조정역량 강화 방안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내년에는 65명, 2027년에는 125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함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원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적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